

한국어 형태론 연구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통합·분리 문제에 대하여

안소진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연구 목적
2. 통합적 이론 구성의 어려움
3. 선행 연구의 접근법
4. 접근법의 종합과 연구 방향의 모색

- ❖ ‘단어와 관련된 이론화를 할 때 어종(語種)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
 - 고유어,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를 구성하는 주요 어종임. 고유어와 한자어는 형태론적 특징이 달라서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할 때 둘을 포괄해 적용할 틀을 세우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 발표에서는 어종에 따른 차이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국어 화자가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잘 특징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함.
 - 어종에 따른 차이가 주로는 ‘자료를 분리해 각 부류의 자료에 집중한 연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유어와 한자어(그리고 외래어)는 차이가 있는 어휘 부류임이 분명하지만 이 어휘들로 언어생활을 하는 화자의 언어능력, 인지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어휘 부류의 차이는 언어 운용에서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함.
 - 한자어의 양상에 관심을 둔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자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며 논의함.

❖ 고유어와 한자어는 형태론적 특징이 달라서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할 때 같은 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예) 내부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한자어에는 뚜렷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면서 자립성이 없는 1음절 형태소로 분석되는 단어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국가(國歌)’는 ‘나라’와 ‘노래’의 의미가 있는 의존형태소 두 개로 분석된다. 두 형태소로 분석되므로 단일어가 될 수 없다. 의미가 같은 고유어를 만들어 본다면 그 단어는 아마도 합성어가 되겠지만 ‘국가(國歌)’의 구성요소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고유어 합성어와 동일한 범주의 합성어로 보기 어렵고, 어근과 접사에 뚜렷하게 대응하는 요소도 없어서 파생어라 하기도 어렵다. 매우 많은 수의 한자어가 고유어에는 없는, 단일어로 보기도 어렵고 합성어, 파생어로 보기도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 한자어 기술을 위한 분석 단위와 체계를 만든다. (김규철 1980, 1997 등)

▪ ‘국가(國歌)’ 유형의 단어를 한자어 특유의 합성어로 본다거나 하는 방식.

예) 김규철(1980, 1997)의 ‘준합성어’ (준단어+준단어). ‘국(國)’과 ‘가(歌)’를 일종의 어휘형태소, ‘국가(國歌)’는 어휘형태소들이 결합한 합성어에 가깝다고 보되 용어에 ‘준-’이라는 표지를 붙임으로써 고유어 어휘 형태소, 고유어 합성어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인 것.

- 한자어를 고유어와 함께 국어 형태론 연구의 본격적 탐구 대상으로 보았다는 의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한자어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류함.

- 고유어와 한자어에 공히 적용되는, 형태론적 사실에 대한 화자의 직관이 반영되지 못함. 국어 화자는 ‘국가(國歌)’를 합성어의 일종으로 직관하지 않음. 화자는 두 어휘형태소로 된 ‘국가(國歌)’보다는 네 형태소로 된 ‘비밀번호(祕密番號)’가 두 형태소로 된 고유어 합성어 ‘돼지고기’와 더 비슷한 구조라고 느끼고, 한자어 ‘재응시(再應試)’와 고유어 ‘헛소리’가 유사한 구조로 형성된 단어라고 파악함.

- ❖ 한자어만의 분석 단위를 만들어 고유어에 없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되 설정한 단위에서 국어 화자가 일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화자에게 문법 요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 문법을 기술할 때 고유어 단위들과 묶어 다룰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노명희 1998/2005, 김창섭 2001 등)
- 노명희(1998/2005) - ‘국가(國歌)’의 ‘국(國)’과 같은 요소는 비기능단위의 범주에 넣고 ‘독립국(獨立國)’의 ‘국(國)’은 기능단위에 속하는 접사성 한자어라 하여 서로 다른 기능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라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했을 때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동질성을 문법 단위 분석에서 고려한(노명희 1990: 26) 방법이다. 국어사전에서 ‘국가(國歌)’의 ‘국(國)’은 문법 단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독립국(獨立國)’의 ‘국(國)’은 접미사 자격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노명희(1998/2005)를 따르면 ‘국가(國歌)’는 ‘기능단위’ (중에서도 비활성 어근 2개가 결합한 자립형식), ‘국(國)’, ‘가(歌)’는 한자어 형태소의 분포를 기술하기 위한 단위인 비활성 어근.

- ❖ 한자어만의 분석 단위를 만들어 고유어에 없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되 분석된 구성 요소 중 국어 화자가 일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화자에게 문법 요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 문법을 기술할 때 고유어 단위들과 묶어 다룰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노명희 1998/2005, 김창섭 2001 등)
- 김창섭(2001) - 현대 국어 한자어는 이른바 2자어가 기본이 되고 이 앞이나 뒤에 다시 1자가 결합하여 3자어가 이루어지는데, 고유어 문법은 그중 2자어의 두 자는 의미적 존재로만 분석하고 3자어류의 어기와 1자는 의미 및 문법적 존재로 분석한다고 보았다. 이를 따르면 고유어 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國歌)’의 ‘국(國)’은 ‘형태소+형태소’ 구조의 한 의미체로 분석될 뿐 구성성분의 문법 관계는 분석되지 않는다. 반면 ‘독립국(獨立國)’의 ‘국(國)’은 의미적으로 분석되면서, 고유어 ‘도둑질’의 ‘질’처럼 ‘비핵+핵’ 구조의 핵임이 파악되어 상대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갖는다.
- 김창섭(2013)을 따르면 ‘국가(國歌)’는 ‘2자어’ [원사(元辭) 2개가 결합한 국어 한자어의 기본적 적격 형식], ‘국(國)’, ‘가(歌)’는 한자어 형태소의 분포를 기술하기 위한 단위인 원사(元辭).

- ❖ 두 번째 접근법은 이론화 과정에서 ‘한자어에 대한 국어 화자의 형태론적 지식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중시하였다고 생각된다.
- ✓ 국어 화자의 단어 구성요소 파악과 새로운 단어 생성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한자어 구성요소 중에는 문법 요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됨.
- ✓ 한자어에서 한문 문법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한자어의 상당 부분을 고유어와 같은 체계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줌. 어종(語種)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로 한자어를 분석할 가능성을 보임.
- ✓ 화자의 한자나 한문 지식의 정도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한자어 부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 ❖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화자’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참고: 형태론적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

- ❖ 첫 번째 관점 - 연구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관찰
 - 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대상을 관찰하여 언어적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
 - 예: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어 단어 구조와 관련된 보편성을 기술함. 구조에 따라 단어를 유형화함.
- ❖ 두 번째 관점 - 연구자가 화자의 관점에서 언어 단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
 - 화자가 개입된, 대상의 운용에 관심.
 - 예: 명명 과제를 활용해 화자가 어떤 기제에 기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지 구명.
- ❖ 두 관점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님. 첫 번째 관점 아래서 기술된 보편성, 규칙성은 자료를 산출해 낸 국어 화자의 머릿속 질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체계 속 규칙성이 화자의 머릿속 지식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음.

- ❖ 형태론적 지식을 성립시키는 인지 능력 차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묶어 다룬다. (안소진 2011/2014ㄱ, 안소진 2014ㄴ 등)
- 안소진(2011/2014ㄱ) - ‘화자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표방. 한자어 형태소의 특성 파악과 분류, 이에 근거한 단어의 분류보다는 어떤 형태소를 특정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형태소로 알게 되는 과정, 어떤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과정과 여기에 작용하는 요인에 관심을 둠. 두 어휘 부류에 대한 형태론적 지식이 동일한 인지 과정에 의한다고 생각되므로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다루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낳는 방식이라고 봄.
- 안소진(2014ㄴ)을 따르면 습득한 단어를 서로 관련시켜 저장하고,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다수의 단어에서 패턴을 발견하며, 단어들의 관계에 의해 복합 형태의 구성요소를 파악한다는 ‘형태론적 지식의 성립 과정’ 면에서 ‘독립국(獨立國)’의 ‘국(國)’과 ‘도둑질’의 ‘질’은 동질적. ‘국(國)’의 의미와 기능이 고유어 접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같은 구조라고 보게 된다고 설명.
- 앞서의 ‘국가(國歌)’를 구성하는 단위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이 단어가 구조 상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음.

- ❖ 한자어를 자료로 한 형태론 연구는 아래 연속선 상의 한 부분에 위치할 수 있을 것. 왼쪽으로 갈수록 한자어 자료 자체에 대한 기술의 정밀성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 어종의 통합 가능성이 커짐.

언어 체계에 대한 기술 결과로서의
한자어 형태론

‘화자가 언어 경험을 통해 파악한, 한
자어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한자어
형태론

- ❖ 어떤 관점에서 자료를 볼 것인가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름. 연속선상의 다양한 위치에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
- 연속선의 왼쪽 관점에서 파악된 자료의 내적 질서는 언어 구조의 일부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고, 화자가 머릿속에 가진 언어 지식을 추정하는 바탕이 되기도 함. 한국어 한자 형태소의 분포 양상을 정밀하게 조사한 주지연(2015), 한자에 기반한 국어 형태소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자 한 주지연(2017).
- 노명희(2018)는 동의 중복 현상, 한자어 형태소가 자의(字義)와 다르게 파악되는 현상 등을 보이고 이러한 한자어 문법의 변화 양상을,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화자의 지식이 변화하면서 화자가 이를 한자어 사용에 반영하게 된 결과로 파악하였음. 한자어 자료가 보이는 새로운 양상에 대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화자의 형태론적 지식, 한자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 연속선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생각됨.

- 안소진(2011/2014년)은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체계를 구성하는 어휘 범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휘부에서 심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았으며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단어’라는 국어 어휘 체계에서의 정의와는 별도로 화자의 머릿속 한자어는 전형적인 성원(예: 추상적, 비일상적, 격식적인 단어)과 그렇지 않은 성원(예: 구체적, 일상적인 단어)이 있는, 인지심리학적 범주화 개념이 적용되는 부류라고 파악하였음. 이러한 범주화는 화자의 언어 경험, 어휘 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음. 연속선의 오른쪽 관점.

- ❖ 다양한 위치의 접근법 중에서, 연속선의 가장 오른쪽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연구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임.

❖ ‘화자가 언어 경험을 통해 파악한,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적 지식’ 관점의 의의:

✓ ‘실제 머릿속 지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단어에 대한 관찰과 기술, 이에 대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단어에 대해 화자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특징짓기 위한 것. 단어의 분포를 관찰하여 기술된 내적 질서는 언어 구조의 일부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화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질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 받기도 함. (예: 단어를 분석해 나온 규칙성이 화자의 머릿속 단어 형성 규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것) 화자에 대한 고려, 구체적인 운용자의 어휘부에 대한 탐구는 이 가정된 관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

❖ ‘화자가 언어 경험을 통해 파악한,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적 지식’ 관점의 의의:

✓ 어종을 통합해 다룰 가능성이 커진다.

단어를 다른 항목과 관련시켜 저장하고, 단어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해 패턴을 형성하고, 의도한 개념을 저장된 항목을 활용해 단어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능력이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차이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화자에서 출발하면, 한자어와 고유어를 운용할 때 공통적인 기제가 적용된다고 보되, 한자어와 고유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관을 한자어는 대부분 1음절-1형태소 대응을 이룬다든가, 고유어와 달리 동일한 형태소가 단어의 앞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든가 하는 적용되는 재료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향의 연구가 됨.

- ❖ ‘화자가 언어 경험을 통해 파악한,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적 지식’ 관점의 의의:
 - ✓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한자어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 어떤 단어를 고유어, 한자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단어의 구조 분석이나 조어 요소 선택, 담화에서 단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개별 단어의, 어휘부에서 인접한 단어 부류(연관되어 저장된 항목들)는 무엇인가? 연결망에 어종은 어떻게 관여하는가?
 -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 화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차이에 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1) 단어의 형성
- 2) 단어의 분석
- 3) 방법론

1)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

- ❖ 주지하다시피 단어의 구조 분석 결과가 곧 단어 형성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님. 한자어의 경우 둘의 차이가 고유어의 경우보다 더 큼. 표현론적 관점에서 단어 형성 자료를 관찰하고 이 과정에 어종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파악한다면 어종을 막론한 일반성(예: 형성 기제 면)과 어종에 따른 특수성(예: 재료 선택 면)을 모두 드러낼 수 있을 것.
- 정한데로(2019), 박혜진(2019ㄱ, 2019ㄴ, 2021)이 참고됨.
- 정한데로(2019)는 단어 형성 연구의 핵심은 ‘화자가 목표한 대상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했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고 보고 개별 화자가 명명 과제를 통해 즉각적으로 만들어 낸 임시어를 대상으로 각 단어의 개념화 및 언어화 양상을 탐구함.

연구 방향의 모색 1) 단어의 형성

- 박혜진(2019ㄱ, 2019ㄴ, 2021)은 단어 형성 과정에서 어종 선택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보여 줌. 화자에서 출발하는, 어종 통합적 연구에 시사점을 줌.
- 표현론적 관점에서 단어 형성의 과정 및 원리를 기술. 명명 동기가 발생했을 때 단어 형성 과정이 시작되며, 그 과정은 대상을 인식하여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의미 형성’, 의미 구조에 대응하는 구체적 형태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형태 형성’의 순으로 진행됨을 논의. 이 과정에서 ‘어종 선택’과 관련한 유의미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에 주목함. (박혜진 2019ㄱ)
- 단어 형성 시 어종 선택에 관여하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함을 확인. 어종 선택에는 ‘명명 대상 자체의 속성, 화자의 언어 의식, 화자의 어휘부,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가진 언어적 특성’ 등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파악. (박혜진 2019ㄴ)
- 형태 형성 과정에서 어종과 관련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보여 줌. 단어 형성 과정을 관장하는 표현 원리 중 ‘정보량 적정화의 원리, 형태 간결화의 원리’ 등이 한자어의 활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였음. (박혜진 2021)

2) 단어의 분석과 관련해

❖ 형태소 분석 능력을 종합적인 추론 능력의 일종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학업성취에 대해서 형태소 인식력, 언어 지능, 시각적 기술의 설명력이 유의한 것은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다만 세 가지 변인을 비교하였을 때 형태소 인식력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다. 형태소 인식력은 국어, 영어 등 문과 계열의 과목 뿐만 아니라 비언어 계열 과목인 수학 점수와도 커다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형태소 인식력이 단순한 언어능력을 넘어서는 좀더 일반적인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광오 외 2015: 185)

형태소 인식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문항의 예:

소 싸움을 투우라고 한다. 닭 싸움은 무엇이라고 하나? (이광오 외 2015: 178)

연구 방향의 모색 2) 단어의 분석

배성봉 외(2016)는 새로운 단어의 학습에서 형태소 처리의 영향을 조사하면서 대학생 조사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맥락을 줬.

형태소 분석 가능 맥락	형태소 분석 불가능 맥락
모래 운동장에 물을 뿌려서 제진 작업을 한다. 키 성장에 문제가 있으면 조골 검사를 받는다	키 성장에 문제가 있으면 제진 검사를 받는다. 모래 운동장에 물을 뿌려서 조골 작업을 한다.

형태소 인식력이 높은 참가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더 잘 학습하였다. 학습 직후에도 1주일 후에도 형태소 인식력에 따른 학습 수행의 차이가 유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맥락 조건에서만 나타났고,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배성봉 외 2016: 316)

연구 방향의 모색 2) 단어의 분석

- ❖ 형태소 분석 능력이 종합적인 추론 능력의 일종이라면, 단어의 분석은 사고 능력, 조직된 어휘부 연결망, 세상에 대한 지식의 문제. 화자가 단어를 분석할 때 어종에 따른 차이는 ‘한자어의 경우 한자 지식이 추론에 도움을 주는 배경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특정되면서, 줄어들 수 있음.
- 이광오 외(2015)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자 능력은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형태소 인식력, 어휘력, 시각적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자 능력이 학업 성취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형태소 인식력, 시각적 기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 이규범(2019)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조사 참가자가 ‘공중전화(公衆電話), 부모님(父母님)’을 ‘공중-전화, 부모-님’으로 분석.

연구 방향의 모색 2) 단어의 분석

- 관련하여, 분석에 있어서 함께 저장된 단어군의 영향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규범(2019)을 따르면 다수의 중학생이 ‘대학생(大學生)’을 ‘대-학생’으로 분석함.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고교생, 동급생, 모범생, 수료생, 상급생, 신입생, 재수생, 우등생, 지각생, 장학생, 실습생, 연구생

❖ 개인차를 학문적으로 의미 있게 수용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함.

- 많은 연구가 국어 화자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향.
- ‘화자’에서 출발하면 개인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 적절한 변인의 설정과 귀납적 일반화 필요.
- 배성봉 외(2016: 316-317) 형태소 인식력에 따라 단어 학습 수행이 다르다.

‘형태소 지식은 철자, 음운, 의미 등과 함께 어휘 품질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실험에서 형태소 인식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한자어, 그리고 더 풍부한 한자 형태소를 심성어휘집에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자어들은 매우 정밀하게 그리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표상되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자어의 어휘 품질은 매우 높고, 그것이 새로운 한자어를 분석하고 심성어휘집에 추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반면에 형태소 인식력이 낮은 경우, 한자어의 형태소 표상은 빈약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 김규철(1980), 한자어 단어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4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규철(1997), 한자어의 단어형성, <국어학> 29, 국어학회, 261-308.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국어학회, 177-195.
- 김창섭(2013) ‘-적(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 68, 국어학회, 167-188.
-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노명희(2009), 어근 개념의 재검토, <어문연구> 1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4.
- 노명희(2010), 혼성어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55-281.
- 노명희(2018), 한자어 문법의 변화 양상, <어문연구> 17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4.
- 박혜진(2019ㄱ),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진(2019ㄴ), 명명 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 활용 양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4(3), 국어교육학회, 137-165.
- 박혜진(2021),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문제 고찰, <국어교육연구> 75, 국어교육학회, 19-56.

- 배성봉·이광오·마스다 히사시(2016), 새로운 단어의 학습에서 형태소 처리의 영향: 개인차 연구, <인지과학> 27(2), 한국인지과학회, 303~323
- 안소진(2011),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소진(2014ㄱ),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태학사.
- 안소진(2014ㄴ), 한자어 형태론의 제 문제와 어휘부, <한국어학> 62, 한국어학회, 373-394.
-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오·이현진·송병렬(2015), 한자능력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 3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73-192.
- 이규범(2019), 중학생의 한자어 형태소 인식 조사 연구, <한국어문교육> 2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89-121.
- 정한데로(2019), 명명 과제를 활용한 단어 형성의 개념화·언어화 연구, <국어학> 90, 국어학회, 173-200.
- 주지연(2015), 한국 한자어의 형태소 분포 조사, <국어학> 76, 국어학회, 39-66.
- 주지연(2017), 한국어 한자 형태소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1), <어문연구> 4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7-98.